

## 李朝前期에 있어서의 對日南海物産貿易 (上)

金 柄 夏

(日本大阪大學大學院・博士課程)

## 차 례

## 第1章 蘇木貿易

## Ⅰ 概 說

## Ⅱ 貴族階級の 奢侈와 蘇木の 需要

## Ⅲ 蘇木の 貿易路와 琉球

## Ⅳ 15世紀에 있어서의 蘇木貿易

## Ⅴ 16世紀에 있어서의 蘇木貿易

## 第2章 香藥貿易(下)

南海貿易의 解明은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對日貿易의 性格을 究明하는데 있어서 重要하다고 보아 着手한 것이 本稿이다. 本稿의 第一章 蘇木貿易은 日本의 '社會經濟史學會 第33回大會'에서 報告한 것이고 第二章 香藥貿易(胡椒貿易을 中心으로 한)은 天理大學에서 있었던 '第16回朝鮮學會大會'에서 報告한 것이다. 따라서 前者와 後者の 內容은 各論적으로 되었으나 本稿에서는 若干 改筆하여 報告當時의 論調를 살려가면서 兩者를 統合하려고 試圖하였다.

## 第1章 蘇木貿易

## Ⅰ. 概 說

蘇木 Sapanwood이란 東印度原産의 樹木으로서 蘇方木의 略稱이다. 蘇方木은 蘇方・蘇枋・蘇芳이라 稱하기도 하며 蘇方國에서 産出되기 때문에 그렇게 命名되었다는 傳説도 있으나<sup>1)</sup> 確實한 根據가 없으며 Sapan이란 馬來語의 訛傳이라 보는 說이 有力하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는 蘇木을 丹木(主로 다목이라 稱하였으며 때로는 단목이라고도 하였음)이라 俗稱하고 있었으나<sup>3)</sup> 漸次 그것이 公稱으로 되고 中宗以後의 諸實錄에도 若干의 例를 除外하고는 丹木의 呼稱으로 統一되고 있다. 그리고 日本側 史料인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에도 丹木이란 呼稱을 使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朝貢關係에 있던 對馬島의 宗氏が 우리나라와 步調를 맞추려 한에서 취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蘇木의 木皮나 葉이 部分을 깎아서 삶은물에 明礬을 加하면 絳色(深紅色)의 染料나 繪具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器玩의 材料나 藥材로 利用되기도 하였으나 東亞貿易史上 重要な 貿易品으로 去來된 것은 珍奇한 染料로 利用되었기 때문이다. 褪色하기 쉬운 缺點은 있으나 媒染劑로 使用되는 明礬의 種類에 따라 豊富한 色感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化學染料가 普及하기 시작한 時期에 이르기까지의 重要的 草木染料의 하나였다.

李朝前期에 있어서의 日本人의 進上物 즉 輸入品은 銅・蘇木・胡椒・硫黃・鐵・藥材等 數十種類에 이르고 이것들의 去來나 需要에 대하여서는 小葉田 淳博士와 黑田省三氏의 先驅的 研究가 있다. 小葉田博士의 研究는 銅과 硫黃을 對象으로 한 것이며<sup>4)</sup> 黑田氏의 그것은 우

註 1) 物名考, 卷四, 蘇方木條.

2) 黑田省三氏, “中世朝鮮貿易に於ける輸出物資について”(兒玉幸多編, 日本社會史の研究, p. 140)參照.

3) 大漢和辭典 卷一, p. 328에 보면 丹木은 “圓葉赤莖 黃花赤實 其味如飴 食不饑 丹水出焉 是生玉管以灌丹木”이라 하여 蘇木과는 전혀 別個의 樹木名으로 되어 있다. ‘物名考’ 第四, 蘇方木條에는 “黃花子黑 煮其木以染赤 我東用倭國者다목”이라 하여 蘇木 즉 다목(丹木)임을 알 수 있고 ‘芝峰類說’ 卷二十, 本草綱目에도 “蘇方木 出南海 用以染色 今之蘇木 蓋是也 俗謂丹木”이라 하여 蘇木이 丹木이라 俗稱되었음을 明白히 말하고 있다.

4) 小葉田 淳博士, “中世に於ける日鮮銅貿易の研究” 社會經濟史學, 第二, 卷上, “中世に於ける硫黃の外國貿易とその産出” 經濟史研究, 第十三號.

리나라로 輸出된 物資에 대한 우리나라의 需要를 中心으로 考察한 것이다<sup>1)</sup>. 中世國際貿易에 있어서 取扱된 商品의 研究는 그 貿易이 갖고 있는 性格을 究明하는데 있어서 現代에 있어서의 그것보다도 一層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이와 같은 意味에 있어서도 위의 諸研究는 높이 評價되는 바이지만 中世朝日交渉史研究의 다른 諸部門에 比하여 開拓되어 있지 않은 部門이 많고 아직도 分明치 못한 點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本論稿가 主로 意圖하는 바는 蘇木의 需要에 관한 從來의 研究를 再吟味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蘇木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需要의 變化와 日本側의 供給의 變化에 焦點을 맞추어 以上の 諸疑問點의 一端을 明白히 하는데 있다.

南海產物인 蘇木은 日本國內產物인 銅이나 硫黃과 더불어 李朝前期에 있어서 가장 많은 量을 日本으로 부터 輸入되었지만 對日貿易의 主體인 李朝의 貴族階級에게는 銅이나 硫黃보다도 蘇木이나 胡椒等의 南海產物이 一層 好奇心을 갖고 歡迎받았으며 또 蘇木의 去來가 朝日貿易의 規模나 展開에 끼친 影響은 지극히 큰 것이다.

李朝前期의 朝日貿易은 15世紀末에 이르러 轉換期에 直面하게 되었다. 즉 李朝前前期라 할 지라도 15世紀와 16世紀와는 貿易의 質이나 展開에 있어서 一時期를 劃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重大한 轉換期을 惹起시킨 主要原因으로서 우선 李朝政府의 財政難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1510年 以後의 朝日貿易의 展開過程에 三浦倭亂이 끼친 決定的 影響도 無視할 수 없으나<sup>2)</sup> 琉球의 中繼에 의한 蘇木貿易上의 變動에도 重要的 原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 Ⅱ. 貴族階級の 奢侈와 蘇木의 需要

奢侈觀念은 相對的인 것이고 絕對的 定義를 確定하기란 困難한 것이다. 奢侈는 時代 혹은 身分에 따라 그 事實이 달라진다. 어떤 時代에 있어서 奢侈品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必需品으로 되는 것이 있고 支配者에 대하여서는 必需品인 것이 被支配者에게는 奢侈品으로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世宗朝부터 成宗까지는 中央集權的 體制가 安定된 時期이다. 中央集權的 體制는 많은 缺點을 갖고 있었으나 그 反面 有能한 君主가 나타나고 잘 統治하면 分權的 體制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效果를 發揮할 수 있는 側面도 있었다. 經濟的 文化的 繁榮에 隨伴하여 生活水準이 向上한다던 奢侈로 흐르기 쉬운 것이다. 李氏朝鮮은 建國以來 崇儉去奢를 國家의 良規로 하여 勸獎하고 있었으나 世宗朝에 이르러서는 奢侈가 一層 增進되었고<sup>3)</sup> 成宗朝 以後에는 一世를 風靡하게 되었으며 社會問題化하고 있었다<sup>4)</sup>.

奢侈觀念은 服飾에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支配層에게는 身分制度나 封建的 社會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兩班과 平民의 服飾을 區別하고 平民의 奢侈를 嚴禁할 必要가 있었다. 府外關係에 있어서는 上國 乃至 文化的 先進國의 貴族으로서 日本人이나 滿洲의 野人으로 부터 尊敬을 받기 위하여서도 貴族의 奢侈는 必要하였다. 服飾上의 奢侈는 그 素材나 製造上의 技術水準 및 稀少性에 의하여 評價될 것이지만 가장 사람들의 注意를 끄는 것은 服飾의 色彩 특히 紅色系統의 色彩인 것이다.

註 1) 黑田省三氏, 前掲書, 參照.

2) 中村榮孝氏, '1510年 朝鮮三浦における日本人の爭亂'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2, 史學1, 參照.

3) 世宗實錄, 卷35, 9年2月 丁丑條.

4) 成宗實錄, 卷13, 2年12月 壬申條.

中宗實錄, 卷15, 7年2月 壬辰條.

上 掲 書, 卷25, 11年5月 辛丑條.

以上과 같은 條件下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染色技術이 크게 發達하였다. ‘芝峯類說’(卷十九)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染色技術의 發達이나 뛰어난 紅紫染色에 대하여 指摘되고 있다.

紅色의 草木染料로 國內에서 生産되는 花(잇)를 들 수 있다. 紅花의 染色은 大紅(다홍)이라 하여 綿布染色에도 適合하고 無難하였으나 그 產地가 一部の 南部地方에 偏在되었으며 生産량이 적고 高價였다. 一衣를 染色하는데 드는 紅花를 얻기 위하여 耕作되는 土地의 面積은 4人家族 一個月分의 食糧을 產出할 수 있는 土地의 面積과 같은 程度로<sup>1)</sup> 生産費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紅花進上에 의한 弊害 즉 地文官吏의 收奪 때문에 紅花가 商品化될 경우에도 高價로 되는 것이다. 中宗 7年(1512年) 2月 朝講席上에서 領事成希顔은

臣聞金孟柔謂 一宰相曰 紅花進上之弊不貸 進上雖或一斗 徵於民間至於三十斗 近來守令率皆如是 故民多流亡 今去觀察使乃擇遺人也 若除此弊 則价川久民庶得蘇復矣<sup>2)</sup>

라 陳述하고 1斗의 紅花를 民間으로 부터 徵收하는데 守令은 30斗를 徵收하고 있으므로 流亡民이 많아진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 地方官에 의한 收奪에 의하여 紅花의 栽培와 商品化가 阻害되고 그 結果로 市中의 紅花價格이 上昇한 것으로 看取된다.

蘇木에 대한 需要의 增加는 紅花의 高價格에만 그 原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도 蘇木이 南蠻渡來의 珍奇한 輸入品이므로 當時에 있어서의 貴族의 奢侈觀念과 適合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一層 많은 需要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 民族은 일찍부터 白衣를 崇尚하여 着用하였으나 王室을 비롯하여 上流의 婦女子는 勿論 有職의 士大夫·女官·樂人 및 祭祀에 從事하는 者는 掖隸胥徒에 이르기까지 色服을 着用할 必要가 있었고 黃·紫·紅·靑 특히 紅色을 널리 使用하였다<sup>3)</sup>. 奢侈에 의한 弊害는 勿論이고 身分制度나 識緯思想에 의하여서도 가끔 黃·紫·灰·白色의 着用에 관한 禁令이 公布되었으나 完全히 實施할 수는 없었다.

紅花의 高價格과 蘇木에 대한 好奇心은 蘇木의 輸入을 促進시켰다. 蘇木의 絳色(深紅色)은 現代人의 感覺에서 보면 鮮明치 못한 것 같이 보일 것이나 當時에 있어서는 紅花의 染色을 雜染이라 稱하고 蘇木에 의한 所謂 木紅을 上色으로 看做하였다.

蘇木에 대한 最大의 需要處는 闕內였다. 闕內에서 使用하는 紅袍(絳紗袍)를 비롯하여 그 밖의 朝服·公服 및 宗廟用의 紅綃·儀仗袱·雜裏袱等の 製造에는 반드시 蘇木을 必要로 하였다<sup>4)</sup>. 國家婚禮에 屬하는 公主·大君·諸君公主의 例에 따라 群少貴族子女의 婚禮準備에도 多量의 蘇木을 必要로 하였다. 그리고 頻繁히 來朝하는 野人에 대한 回賜用衣服의 製造에도 多量의 蘇木을 必要로 하였다. 蘇木은 女子의 치마나 紅袍와 같이 表面의 染色을 主目的으로 하여 使用되었을 뿐만 아니라 衣裏의 染色에도 多量의 蘇木이 使用되었다.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蘇木의 많은 部分이 衣裏의 染色에 消費된 것 같다. 世宗 9年(1427年) 2月 司諫院은 崇儉去奢 有國久良規 故奢侈之習 不可不禁也 芝草紅花 雖本國所產 極爲稀貴 至若丹木則全賴倭客 輿販以資國用 今上白卿大夫 下至賤隸 好著紫色 因此紫色之價 一匹所染 又直一匹 至於衣裏皆用紅染 丹木紅染之價 亦爲不賤 非惟奢侈 相尚等威 無辨物價騰湧 亦爲可慮 自今某紫染 則進上衣襪及闕內所用外 一皆庸禁 紅染衣裏 則文武各品及士大夫子弟外 各司吏典 外

註 1) 星湖僊說類選, 卷5上, 人事篇.

2) 中宗實錄, 卷15, 7年2月, 乙酉條.

3) 黑田省三氏, 前掲書 p. 43, 參照.

4) 世宗實錄, 卷35, 9年2月 丁丑條.

燕山君日記, 卷33, 5年6月 丙辰條.

中宗實錄, 卷12, 5年10月 乙酉條

外方鄉吏 工商賤隸 亦令禁著 限以年月 永斷奢華 以辨等威<sup>1)</sup>

라 上疏하였다. 奢侈觀念과 等威의 崇尚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賤隸에 이르기까지 紫色(絳色)을 좋아하고 一匹所染의 費用이 一匹의 價格에 相當할 程度로 染色費가 高價임에도 不拘하고 衣裏까지도 모두 紅染하는 狀態이므로 進上衣服과 闕內所用 以外の 紅染과 紫染을 禁하고, 또 文武各品 및 王(王)大夫子弟 以外の 各司吏典・外方鄉吏・工商賤隸가 衣裏에 紅染하는 것도 禁止하자고 上疏한 것이다.

紅色染料의 高價와 財政困難으로 말미암아 가끔 公布된 紅染禁止令도 그리 效果를 보지 못하였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蘇木輸入의 激增과 더불어 一種의 데몬스트레이션 效果가 나타났던 것이다. 成宗 19年(1488年) 6月 戶曹判書 鄭蘭宗은 여름 3個月間의 倭人所獻에 대한 答賜布帛이 無慮 10餘萬匹이나 되어 ‘以國家有限之貨 恐難繼之’의 狀態에 있는데도 ‘彼人來獻之物 唯段梅木蘇木等物 則公私所用也’<sup>2)</sup>라 上啓하여 蘇木의 必要性을 主張한 것도 偶然한 일은 아니다.

封建政府의 以上과 같은 需要에 應해서 日本人은 多量の 蘇木을 來獻하였다. 이 時期의 朝日貿易은 蘇木貿易에 의하여 大規模로 行하여졌고 蘇木을 浦所에서 서울까지 輸轉하는데 따른 驛路의 弊害도 莫甚하였던 것이다. 世宗20年(1428年) 中樞院使 閔義生은

商倭蘇木輸轉之弊甚巨 倭人貿易未易遽禁 禁本國蘇木入染 則商倭自無來市之弊矣<sup>3)</sup>

라고 上啓하여 商倭의 來市의 原因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蘇木入染에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同啓에 대해서 國王도 ‘卿言是矣’라 말하여 그것을 是認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蘇木에 대한 奢侈觀念도 時日이 經過됨에 따라 漸次로 變化하여 갔다. 奢侈觀念은 流行에 敏感하다. 中宗代에 이르자 中國의 白糸輸入도 增大하였고 사람들은 高級의 紗羅綾段을 愛用하게 되었다. 木花의 栽培가 普及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綿布도 奢侈品에 屬하였고 朝官도 木綿團領을 着用하고 있었으나 이 時期에 이르러서는 窮塞朝土까지도 모두 唐糸의 衣服을 着用하는 狀態였다<sup>4)</sup>. 奢侈의 焦點이 中國製織物에 集中하면 集中할 수록 上流社會에 있어서의 蘇木의 需要는 減少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III. 蘇木의 貿易路와 琉球

蘇木이 우리나라에 直接 齎來된 것은 高麗末期이다. 廢王昌代(1389年)에 琉球國中山王察度는 使臣을 보내어 奉表稱臣하여 入貢하고 倭寇에게 붙잡혀가서 琉球에 轉賣된 우리나라 사람을 送還하였으며 硫黃 300斤 蘇木 600斤 胡椒 300斤 甲 20部를 進獻하였다<sup>5)</sup>. 이것은 蘇木輸入에 관한 文獻상의 最初의 記錄이라 생각되는 바이지만 李朝前期에도 琉球國王使의 蘇木進上은 斷續적으로 이루어졌다. 李朝初期에는 琉球國王使뿐만 아니라 南方의 暹羅斛國(占)使와 爪哇國(Java)使의 渡來도 있었다. 太祖2年(1393年)에는 暹羅斛國使가 蘇木 1千斤을 進獻하였고 太宗6年(1406年)에는 爪哇國使의 渡來가 있었으나 倭寇에 의하여 蘇木・胡椒・孔雀等의 進物이 奪取當하였고 60人의 被虜者와 21人의 戰死者를 내고 40人만이 九死一生으로 生還할 수 있었던 事件이 發生하였다.

以上과 같은 南海諸國使의 來朝는 蘇木・胡椒等의 販路와도 깊은 關係가 있다. 暹羅斛國은 羅斛이 強大하여지고 暹을 合併한 後의 稱號로 인도차이나半島의 中央部に 位置하고 蘇

註 1) 世宗實錄, 卷35, 9年2月 丁丑條.

2) 成宗實錄, 卷217, 19年6月 丁未條.

3) 世宗實錄, 卷80, 20年正月 乙未條.

4) 中宗實錄, 卷25, 11年5月 辛丑條.

5) 高麗史, 卷137.

木의 主產地였다. 暹國에서는 蘇木을 薪爨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알려질 程度로<sup>1)</sup> 蘇木이 豊富한 地方이다. 말라이半島와 爪哇에도 蘇木과 胡椒等이 產出되었고 이와 같은 南方特產物들은 當時에 있어서 東洋第一의 貿易港이었던 말라카 Malacca를 中心으로 集散하였다. 胡椒는 그 當時 西유럽方面으로 有利한 條件下에 輸出되고 있었으므로 生産地에 있어서도 高價이고 따라서 豊富히 產出되는 蘇木의 販路는 當然히 우리나라와 中國・日本等地로 求하게 된다. 海東諸國紀의 筑前州條에 博多是 ‘琉球南蠻所集之地’라고 記載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李朝初期에 있어서는 南蠻船이 頻繁히 北上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當時의 船舶이나 航海技術로 보아 南蠻諸國으로 부터 直接 渡來하는 것은 그 距離가 너무나 멀고 倭寇의 侵害를 받을 憂慮도 있어서 冒險의 行爲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 比하면 琉球人에 의한 中繼貿易은 一層 安全性이 있고 日本側에 대하여서도 便利한 方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當時의 朝鮮에서는 徹底한 抑商政策과 海防政策을 實施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商人의 南海進出은 困難하였고 明나라에서는 建國以來 海禁令을 實施하여 中國沿岸商人의 海外渡航을 嚴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中國商人의 南海進出이 困難하게 되자 琉球人이 活躍하게 되었던 것이다. 琉球의 地理的 位置는 日本과 朝鮮・中國의 南蠻物產의 中繼地로서 그 立地條件이 가장 適合하였다. 海東諸國紀에 의하면 富山浦(釜山)으로 부터 對馬島의 都伊沙只——船越浦——岐島의 風本浦——毛都伊浦——肥前州의 上松浦——惠羅武——大島——度九島——與論島——琉球의 코오소가 543里(우리나라 里數로 5430里)로 되어 있다. 琉球로부터 말라이半島의 말라카까지는 直線航路로 計豫하더라도 2倍以上의 距離이다. 이 距離는 當時의 航海手段과 技術水準으로 보아 決코 가까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리 큰 困難을 隨伴하지 않고 往來할 수 있었던 航路였다고 말할 수 있다. 琉球가 우리나라와 日本에 比較的 가까운 距離에 있으면서 蘇木・胡椒等의 產地인 삼・말라이・스마트라・자바等地와의 通交에 適合한 位置에 있다는 事實과 天然資源이 貧弱하다는 條件은 國家의 財政的 土臺를 海外貿易에 依存케 하였다. 海東諸國紀의 著者가 琉球의 事情에 대하여 ‘地窄人多 以海舶行商爲業’이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事實을 如實히 描寫하고 있는 것이다.

琉球가 南方으로 부터 貿來한 南海產物의 最大의 需要國은 明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進貢 및 私貿易에 의하여 琉球로부터 直接 明나라에 輸出되는 경우가 主이지만 間接의으로 日本의 進貢物이 되어 莫大한 量이 再輸出되었고 明使의 討索 私貿易 乃至 密貿易에 의하여 우리나라로부터 明으로 再輸出된 蘇木의 量도 적지 아니하였다<sup>2)</sup>. 그런데 琉球가 獲得하는 利潤은 琉球로부터 明으로 直接 輸出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蘇木을 明으로 轉賣할 경우 琉球時勢의 數十倍 乃至 百倍로 購入되었다고 推定되고 있다<sup>3)</sup>.

明史에 記載되어 있는 入貢國과 入貢回數를 秋山謙藏氏의 集計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註 1) 芝峰類說, 卷20, 本草綱目.

2) 世祖實錄, 卷4, 2年5月 甲戌條.

成宗實錄, 卷118, 11年6月 庚戌條.

世宗實錄, 卷33, 6年正月 乙亥條.

上 揭 書, 卷53, 13年8月 乙巳條.

上 揭 書, 卷95, 24年正月 丁卯・戊辰條.

3) 富村眞寅氏, 琉球王朝의 朝貢貿易策. 琉球大學文理學部總要人文・社會, 第5號, 開學10周年紀念號. p. 8. 東恩納寬治氏, 琉球의 歷史. p. 41. 參照.

4) 秋山謙藏氏, 室町時代に於ける琉球의 印度支那諸國との通交. 歷史地理56卷, 6號에 의하여 作成하였음.

① 琉球	117回	② 安南(Viet-nam)	89回
③ 烏斯藏(Tibet)	79回	④ 哈密(Hami)	76回
⑤ 戰城(Chanchoeng)	74回	⑥ 暹羅(Siam)	73回
⑦ 土魯番(Turfan)	41回	⑧ 爪哇(Java)	37回
⑨ 撒馬兒罕(Samarkand)	39回	⑩ 朝鮮	30回
⑪ 瓦剌	23回	⑫ 滿刺加(Mallacca)	23回
⑬ 日本	19回	⑬ 蘇門答刺(Sumatra)	16回
⑮ 眞臘(Cambodia)	14回	⑮ 浮泥(Borneo)	8回
⑰ 三佛齋(Djambi)	6回		

琉球의 入貢數 171회는 安南의 89회보다도 훨씬 많고 琉球 以外の 平均入貢數 40회의 4倍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琉球가 171회의 入貢을 할 수 있었던 것도 中國의 支配層이 要求하는 多量의 蘇木과 胡椒等을 海路를 通하여 進獻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蘇木은 琉球의 對明輸出品中에서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하고 있었다. 小栗田 淳氏의 計算에 의하면 1461년부터 1526년까지의 琉球進貢船의 蘇木附搭量은 378,500斤이었음에 대하여 胡椒의 附搭量은 72,000斤 番錫의 그것은 58,000斤이었다<sup>1)</sup>. 琉球政府는 明에의 朝貢品調達과 그 剩餘物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利潤을 獲得하기 위하여 自國의 使船을 南方으로 派遣하였던 것이다. 南方에 있어서의 琉球와의 通商國은 暹羅·舊港 Palembang·爪哇·滿刺加·蘇門答刺·佛太尼·安南·巡達 등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暹羅國과의 通交가 가장 頻繁하였다. 1425년부터 1570년까지의 146年間に 있어서의 南方諸國에의 遣船回數 104回 중에서 暹羅國에의 遣船回數는 58회를 차지하였다<sup>2)</sup>.

暹羅方面에의 遣船回數가 많은 것은 蘇木을 獲得하기 위하여서이다. 琉球國使는 主로 中國產의 磁器와 暹羅產의 蘇木을 交換하였고 그 밖에 中國產의 絹織物과 日本產의 刀類 및 扇類等도 蘇木에 대한 支拂手段으로 使用되었다. 使船團은 2,3艘의 船舶으로 構成되었고 大體로 2~300名의 構成員이 搭乘하고 있었던 것이나 그 乘務員中에는 우리나라 近海에서 倭寇에게 붙잡히고 琉球에 奴隸로 팔려간 우리나라 사람도 相當히 많았다. 그들은 船舶의 操縱을 잘하였기 때문에 琉球로 부터 다른 여러나라에의 頻繁한 通交에 水夫로 使役되었고 個中에는 上副官人의 他位에 오르는 者도 있었다. 秋山謙藏氏의 研究에 의하면 琉球船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탔기 때문에 말라카 사람들은 코레스(高麗)라고 일컬었다고 한다<sup>3)</sup>. 琉球國使船團은 季節風과 海流를 利用하여 航海하고 있었으나 그 航路는 秘密히 하고 있었다. 商品의 原產地와 航路가 他國人에게 알려지게 되면 競爭者가 나타나서 獨占의인 中繼貿易의 利潤이 減少되기 때문이다.

南蠻商船도 琉球에 往來하고 있었으나<sup>4)</sup> 蘇木產地의 南方과 琉球와의 航路는 琉球가 거의 獨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成宗12年(1481年)頃부터 李朝支配層間에 問題化하고 있던 胡椒種의 求請과 거기에 대한 日本人의 態度에도 나타나고 있다. 李朝의 貴族階級이 胡椒를 必需로 하고 自給自足を 試圖하여 日本人에게 胡椒種을 求請하였음에 대하여 日本側은 如何한 手段으로라도 朝鮮의 要求를 받아드려 그 歡心을 얻으려 하고 있었으나

註 1) 小栗田 淳博士, 中世南島通交貿易史의 研究, p.304. 參照

2) 上掲書, pp. 81—85. 參照.

3) 秋山謙藏氏, 前掲書, pp.9—10. 參照.

4) 海東諸國紀, 琉球國紀國俗條.

欲遣使南蠻 以求胡椒種 南蠻地遠動經三年<sup>1)</sup>

胡椒非倭國所產 出於南蠻 琉球國商販人 入于南蠻求得 諸島倭人收買而來 轉賣于本國<sup>2)</sup>

과 같은 理由와 事情으로 朝鮮의 支配層의 鑒鑒에 應할 수가 없었다. ‘南蠻地遠動經三年’이란 勿論 誇張된 表現이지만 南蠻과 琉球, 琉球과 日本諸島와의 코오스가 明白히 表示되고 있으며 間接的이기는 하나 南蠻——琉球의 코오속에 있어서의 琉球人의 貿易活動을 看取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南蠻——琉球의 貿易路는 琉球側에 의하여 거의 獨占되고 있었으나 琉球——日本의 그것은 多數의 日本商人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琉球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蘇木의 需要에 대하여 情報을 入手하고 있었음에 틀림없고 또 琉球의 經濟事情으로 보아 直接 우리나라와 通交하고 南海物産을 去來하는 것이 一層 有利하다는 것은 明白하지만 南方諸國船의 例와 마찬가지로 琉球船의 北上에도 障礙에 부딪치게 되었다. 즉 北上하는 琉球船은 對馬島附近에서 倭寇에게 略奪당하여 朝鮮과의 通交에 決定的인 制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sup>3)</sup>. 倭寇의 背後에는 宗氏・松浦黨諸氏 등의 豪族이 影響力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宗氏와 같은 豪族의 指示에 의하여 琉球船의 北上을 阻止시킨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琉球가 朝鮮과 直接 通交한다는 것은 對馬島의 朝鮮貿易權과 競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琉球船이 日本에 來航하는 것은 完全한 競合이 되지 않고 相互補完의인 側面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琉球——日本間의 코오스는 多數의 日本人이 차지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琉球船도 頻繁히 來航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琉球船은 畿內來航 以前부터 九州와는 자주 往來하고 있었고 그 中心을 博多였다<sup>4)</sup>. 海東諸國紀의 ‘日本國西海道九州之圖’에는 當時의 主要航路가 表示되어 있다. 즉 琉球와의 航路는 九州의 東海岸을 迂廻해서 赤間關을 通過하는 코오스와 薩摩의 坊津과 上松浦를 經由하여 博多로 向하는 코오스 坊津을 經由하지 않고 宇治島와 甌島의 西쪽을 通過하여 上松浦・博多方面으로 向하는 코오스 內海를 거쳐 畿內로 들어가는 코오스가 있었음이 明示되어 있다. 琉球船의 畿內에로의 來球은 永享年間(世宗11年~22年, 1429年~1440年)이 가장 頻繁하였으나 日本에 있어서의 應仁・文明亂과 海賊의 略奪로 말미암아 瀬戶內海의 航海가 困難하여짐에 따라 漸次로 減少되었고 文明年間(睿宗元年~成宗17年, 1469年~1496年)에 이르러 堺地方의 商人이 琉球에 渡航하게 될 때까지 琉球와 畿內와의 通交는 거의 中斷되었었고 南海로 부터 渡來하는 蘇木은 一層 많은 量이 博多로 모여들게 되었다. 朝琉貿易路에 있어서 薩摩는 主要한 經由地였고 또 當地의 豪族들이 薩摩로부터 直接 우리나라에 進上한 南海產物 特히 蘇木의 量은 적지 아니하였지만 ‘琉球——薩摩——博多’의 코오스가 固定된 連結線인 것처럼 생각하여 公式化하는 것은<sup>5)</sup> 若干의 誤解를 招來할 것 같다. 端宗元年(1453年) 琉球國中山王使로 來朝한 道安의 말에

琉球國與薩摩和好 故博多人經薩摩往琉球者 未有所阻 近年以來不相和睦 盡行擄掠 故却從大洋 迤邐而行 甚爲難苦 今我出來時 商船二艘亦被搶擄 因示博多薩摩琉球相距 地圖又錄<sup>6)</sup>

과 같이 近年에 琉球와 薩摩가 相和치 못하여 通過하는 商船을 擄掠하므로 大洋을 航行한다고 陳述한 것은 島津氏의 琉球貿易權과 關係가 있는 것이지만 前述한 海東諸國紀의 航路는

註 1) 成宗實錄, 卷151, 14年2月 甲申條.

2) 上揭書, 卷196, 17年10月 丁丑條.

3) 世宗實錄, 卷14, 3年11月 乙丑條.

4) 田中健夫氏, 倭寇と勘合貿易, p.173.

田中健夫氏,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p.63.

5) 李鉉琰氏,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 p.211.

6) 端宗實錄, 卷6, 元年5月 丁卯條.

두말할 것도 없고 同地圖에 薩摩以南의 島嶼의 距離表示가 거의 上松浦中心으로 되어 있다는點과 同書琉球國紀條의 ‘自上松浦至惠羅武’라는 記錄等を 綜合하여 볼 때 적어도 海東諸國紀가 撰進된 1471年頃에는 薩摩를 經山지 아니하고 宇治島와 甌島(甌列島)의 西쪽을 通過하여 上松浦・博多로 向하는 코오스가 基幹으로 되어 있었다고 確信하는 것이다. 그리고 島津氏의 琉球貿易獨占體制가 確立된 것은 1550年代임을 덧붙여 말하여 둔다.

博多是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琉球・南蠻舶所集之地’로 京都 다음가는 日本 第二의 大都市였으며 말라이半島의 말라카 琉球의 首里와 더불어 東亞의 三大貿易港이기도 하였다. 그 當時 博多是 1萬戶 以上の 戶數를 가지고 富商의 家數 千戶가 櫛比하여 活氣가 넘쳐 있었다고 한다<sup>1)</sup>. 對馬島人이 琉球로 航行하여 蘇木을 購入하고 우리나라에 進上한 數量도 적지 않았으나 蘇木貿易은 筑前州가 支配의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으며<sup>2)</sup> 博多의 商人中에는 宗金과 같이 蘇木貿易에 의하여 巨富를 이룬 者도 있었다.

15世紀末頃까지의 蘇木의 貿易은 大體로 以上과 같은 經路에 의하여 行하여졌던 것이지만 主로 蘇木貿易에 의하여 繁榮하였던 琉球의 中繼貿易도 15世紀末 무렵부터는 衰退하기 시작하였다. 明에 대한 朝貢品의 調達로 말미암아 殷盛하였던 南方貿易도 貢期가 制限된 1475年(成宗5年 成化11年)을 契機로 하여 沒落하기 시작하였다. 明朝建國以來 實施하여 온 海禁令은 嚴寬이 있었으나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禁令을 犯하는 者가 激増되었고 16世紀初頭 以後에는 貢船이 아닌 南海論商船의 入港을 許可하게 되었다<sup>3)</sup>. 海禁令의 實施에 의하여 無競争下에 極東에 있어서 貿易上의 憂位를 차지하였던 琉球가 海禁令이 有名無實하여짐에 따라 重大한 打擊을 받게 됨은 當然한 일이다. 그리고 16世紀 初頭 以後에는 포도류갈의 말라카占領(1511年)을 契機로 한 西歐勢力의 東漸, 日本人의 進出, 海禁令의 解除等에 의하여 琉球의 中繼貿易은 沒落의 運命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琉球의 明에 대한 附搭貨의 數量에도 反映되고 있다. 小葉田博士의 計算에 의하면 1461년부터 1476년까지 附搭된 蘇木量은 年平均 18,857斤이었으나 1477년부터 1526년까지의 그것은 5,478斤, 1527년부터 1555년까지의 그것은 661斤으로 激減되고 있다<sup>4)</sup>. 琉球의 南海貿易의 衰退는 朝鮮의 蘇木輸入에도 影響을 끼쳤다고 생각되나 이點에 대하여서는 後述하러 한다.

#### IV. 15世紀에 있어서의 蘇木貿易

朝日間의 蘇木貿易은 朝日貿易과 運命을 같이하고 있다. 李朝前期에 있어서 두 나라의 貿易의 性格이 固定되고 活潑히 展開된 것은 世宗朝에 이르러서이다. 蘇木의 去來도 世宗朝에 이르러 活潑히 行하여졌다. 定宗元年(1399年)에 進獻한 日本國大將軍使와 大內殿等의 進上物에도 蘇木은 包含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sup>5)</sup> 太宗6年(1406年)9月 宗茂使가 進獻한 蘇木・胡椒等의 南蠻物産은 同年8월에 爪哇國(자바)使球으로 부터 劫奪한 것이었다.

그런데 太宗朝에 이르러서는 日本으로 부터의 蘇木輸入은 增加된 것 같다. 太宗6年(1406年)12월에 ‘丹州守・肥州守’가 使臣을 派遣하여 蘇木・胡椒・玉帶・槍劍・水牛角等을 進獻한 事實이 있었고 同11年2月에는

1) 宮本區次博士, 博多と福岡, 宮本博士編, 九州經濟史論集, p. 22. 參照.

2) 第1章 IV. 人別蘇木進上表, 參照.

3) 佐久間 重男氏, 明朝の海禁政策, 東方學第6輯, p. 49. 參照.

4) 小葉田 浩博士, 中世南島通交貿易史の研究 p. 304. 參照.

5) 定宗實錄, 卷1, 元年5月 乙酉條.



命禁 各道進獻器玩 絳色 上曰 蘇木非本國所產 器玩宜用 質素<sup>1)</sup>

와 같이 各道에서 進上하는 器玩에 貴重한 染料로 되는 蘇木이 使用되고 禁令까지 公布된 것을 보면 當時에 있어서의 蘇木의 輸入량은 적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

世宗代에 와서는 對日蘇木輸入량은 激增하였다.

日本人의 蘇木進上表(1418~1427)<sup>2)</sup>

年	進上 回數	進上量 (斤)	一回平均 進上量(斤)
世宗即位年(1418年)	3	400	133.3
世宗元年 (1419年)	0	0	0
世宗 2 年 (1420年)	3	1,200	400.0
世宗 3 年 (1421年)	7	3,800	542.9
世宗 4 年 (1422年)	1	300	300.0
世宗 5 年 (1423年)	51	56,070	1,099.4
世宗 6 年 (1424年)	7	5,050	721.4
世宗 7 年 (1425年)	2	1,100	550.0
世宗 8 年 (1426年)	3	1,000	333.3
世宗 9 年 (1427年)	4	1,500	375.0
計	81	70,420	869.4
年 平 均	8.1	7,042	

李朝實錄은 各王朝에 따라 記錄上의

精粗가 있어서 ‘來獻土宜’라는 記錄中에 蘇木의 進上이 包含되는 경우가 많고

또 相當한 量이 密貿易으로 去來되었다고 생각되지만 貿易品의 數量이 가장 詳

細히 記錄되어 있는 部分에 의하여 作

成한 위의 表에 의하면 世宗2년부터 蘇木의 進上量이 增加하기 시작하여 世宗

5년에는 56,070斤으로 되고 年平均 蘇木의 進上量은 7,042斤이다. 世宗5年是

蘇木의 總進上量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進上回數와 1回平均 進上量에 있어서도

壓倒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世宗5年은 朝日貿易이 가장 圓滿히 遂行되었

던 時期이고 蘇木의 輸入에 대하여서도 그리 制限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世宗5年の 1回平均 進上量은 1,099斤으로서 全體平均인 869斤보다도 훨씬 많다. 이것은 世宗5년에 南海로 부터 日本에 輸出된 蘇木의 量이 많았다는 事實을 意味하고 있다.

다음 表는 同期間에 있어서의 進上者別 蘇木의 進上量을 集計한 것으로서 10年間에 있어서의 總蘇木進上量에 대한 1回當 平均進上量은 869斤으로 되어 있다. 全進上者 28名中에서 九州探題 源義俊의 14,000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筑州管事 平滿景의 11,000斤, 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 源朝臣久豊의 8,100斤의 順으로 되고 있다. 6千斤 以上の 5名이 全體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筑前州와 薩摩州로부터의 進上이 憂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地方이 蘇木의 集散地이므로 蘇木의 入手가 比較的 容易하였던 事實을 意味하는 것으로 본다.

世宗10年(1428年)以後도 蘇木의 去來는 活潑하게 行하여 졌다. 15世紀의 中葉은 日本에 있어서도 蘇木이 豊富な 時期로서 寶德3年(文宗元年)이 遣明球에는 國王附搭貨의 名目으로 蘇木 106,000斤을 積載하고 있었다<sup>3)</sup>.

世宗20年頃에 우리나라로 渡航한 商倭들은 蘇木을 販賣하는 것이 主要한 目標였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藏木에 대한 需要의 增加와 商倭의 渡來에 대하여서는 既述하였지만 이 時期에 이르러서는 銅과 鐵鐵의 輸入도 增加하여 絡繹不絕의 狀態였고 浦所로부터 서울까지 倭物을 運送하는 것이 큰 問題로 되고 있었다. 蘇木에 比하여 銅의 私賣은 活潑하였으나 鑄錢이 實施된 以後는 國用으로 말미암아 銅의 私賣을 禁止하였다. 그런데 蘇木・銅等의 運送에 隨伴하는 弊害때문에 世宗9년에는 서울까지 轉輸하지 않고 商人의 和賣을 許可

註 1) 太宗實錄, 卷21, 11年2月 壬辰條.

2) 秋山謙藏氏, 日支交渉史研究, pp. 96—100에는 同時期에 있어서의 輸出入品의 數量이 記載되어 있으나 全體적으로 落脫과 誤植이 적지 않다.

3) 戊子入明記.

하게 되었다<sup>1)</sup>. 浦所로부터 서울까지의 運送과 그 밖의 一切의 費用은 被進貢者의 負擔을 原則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日本人이 使臣의 資格으로 上京한다면 서울의 富商과 의 私貿易으로 一層 많은 利潤을 獲得할 蓋然性이 있었으나 商倭의 上京과 그 商品의 輸京을 嚴格히 制限하였던 것이다.

浦所에서 買收한 貨物은 貢船이 上來할 때에 並載上納하고 洛東江과 漢江의 水運을 利用하는 方法도 講究되었으나 世宗27年(1445年) 4月에는 領議政黃喜等의 議에 의하여 諸島의 興利倭人이 舶載한 銅·鐵·丹木(蘇木)等 輸轉艱重의 物件은 分半留浦시켜 貿易케 하고 日本國王使臣과 大內使送客人의 舶載한 貨物은 全部 輸京케 하였다<sup>2)</sup>. 同29年11月에는 商倭가 舶載한 雜物이 극히 많고 그 折半 혹은 3分の 1을 量減留浦시키더라도 서울까지의 轉輸量은 1年에 2千餘駄를 내리지 않는 形便으로 沿邊州郡의 轉輸의 弊가 極甚하였으므로 議政府는 戶曹·禮曹와 同議해서 丹木(蘇木)·銅·鐵鐵에 관한 交易事目을 定하였다. 즉 丹木·銅·鐵鐵은 모두 留浦시키고, 私貿易은 一切 禁止하며 從來의 倭館公貿易의 例에 따라 그 代價를 官給하고 京中과 浦所와의 受價에 差異가 없게 하며 合行條件은 다시 磨勘을 加하여 公家所用의 物을 除하고 그 餘分은 綿紬·木綿·正布를 가리지 않고 自願에 따라 和賣하여 公貿易의 費用을 補充케 하고 貿易한 丹木·銅·鐵鐵은 慶尙道所納의 司宰監貢船과 各浦의 兵船으로 하여금 漕運케 하여 典農寺에 收納하고 典農寺가 그 典賣를 管掌케 하며 海路轉運이 困難할 때에는 前例에 의하여 農隙에 洛東江에 舟載하고 忠州·金遷으로 부터 站船에 移載하여 來京케 하거나 혹은 尙州에 保留하여 典農寺에 納價한 官許의 商人이 文契를 가지고 該 경우에 限하여 受渡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sup>.

人別蘇木進上表 (1418~1427)

進上者	進上回數	進上量(斤)
一岐州萬戶道永	2	200
日向州太守源氏島津元久	1	100
筑前州太守藏親家	1	200
對馬都都熊瓦宗貞盛	3	1,070
九州總管源義俊	11	14,000
防長豐三州都護大內殿家姪多多良滿世	1	300
對馬島都萬戶左衛門太郎	9	6,400
前九州總管(探題)源道鎮	10	7,000
筑州管事平滿景	12	11,000
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修理大夫源朝臣久豊	2	8,100
肥州太守源(吉見)昌清	3	2,700
一岐太守源重	3	1,900
九州府石城式部小輔源俊臣	2	600
駿州太守源省(田平殿)	2	1,600
作州前刺史平常嘉	3	2,500
對馬三味三甫羅	1	300
九州平常嘉	1	500
對馬州代官野馬多老重久	1	1,200
筑前州太守藤原(小貳)滿貞	3	5,150
備州刺史大藏氏種	1	400
九州多多良德雄(大內盛見)	1	1,000
薩摩州源(島津)貴久(久豊의子)	2	2,500
日本國王使圭壽·梵齡	1	1,000
日本國王使圭壽·梵齡의 私進	1	100
對馬藤次郎	1	200
肥州田平寓鎮海州太守原省後室融仙	1	100
石見州長濱因幡守	1	100
薩州伊集院寓鎮藤原賴久	1	200
計	81	70,420
1 回 平均		869.4

註 1) 世宗實錄, 卷37, 9年8月 癸未條.  
 2) 上 揭 書, 卷80, 20年2月 乙卯條.  
 上 揭 書, 卷82, 20年8月 丁巳條.  
 上 揭 書, 卷108, 27年4月 甲寅條.  
 3) 上 揭 書, 卷118, 29年11月 乙卯條.

主要商品에 관한 以上과 같은 劃期的인 規定은 그 後에 여러가지 問題를 일으키게 되었다. 留浦되는 日本側의 商品이 增大됨에 따라서 그 價格이 低落하게 되고 留浦나 輸京이나의 問題를 둘러싸고 彼我間에 여러차례에 걸친 交涉 乃至는 紛糾이 있었으나 輸轉에 따른 弊害問題 때문에 全部 輸京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商倭에게는 上京하면 서울의 富商과 私貿易을 할 수 있는 利點이 있었기 때문에 기어코 輸京하려 하였다<sup>1)</sup>. 李朝의 官人들은 ‘京外之價’와 서울의 價格에 差異가 없다는 것을 日本側에 納得시키려고 努力하였으나<sup>2)</sup> ‘京外之價’와 差異가 없다는 것은 官貿易의 경우이고 私貿易에서는

‘日本國王使臣 多資赤銅來 各司官吏欲者品貿易 使臣曰 今我資來銅 若皆官貿易 則當在浦所而貿易矣 何必來京’<sup>2)</sup>

과 같이 많은 差異가 있었던 것 같고 私貿易에 의한 利潤獻得을 위하여 上京을 希望하였다는 것을 看取할 수 있다<sup>3)</sup>.

李朝의 商倭에 대한 留浦措置와 私貿易에 대한 制限에는 嚴寬이 있고 斷續적으로 遂行되었다. 留浦措置가 施行되면 代價의 織物을 浦所에서 支拂하게 되므로 浦所의 在庫品으로는 不足하여 多量의 織物을 中央으로부터 浦所로 輸送하게 되었다. 世宗32年 閏正月에는 留浦된 蘇木·銅·鐵鐵의 代價로서 綿紬 1萬匹을 浦所로 下送하였으나 不足하였다고 한다<sup>4)</sup>.

統制貿易이 強化되어 감에 따라 國王使로서 來朝하는 者가 增大하였다. 巨魯使보다도 國王使의 資格으로 來朝하는 使이 有利한 待遇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道安이란 日本商人이 琉球國王使로 活躍하였던 背後에도 以上과 같은 事情이 있었다. 個中에는 日本國王使를 詐稱하여 來朝하는 者도 있었다.

世宗30年(1448年) 6月과 同31年2月에 渡來한 日本國王使와 薩州藤原熙久使의 進物속에 各 蘇木 1千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면<sup>5)</sup> 15世紀 中葉의 1件當 蘇木의 去來量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世祖元年(1455年) 9月의 戶曹와 禮曹의 啓에 의하면 道安이 가지고 온 銅·鐵·蘇木의 價格은 正布 約 9萬餘匹로서, 서울과 浦所에서 逐日로 私貿易케 하지 않는 限 ‘不能盡買’의 狀態였고<sup>6)</sup> 世祖3年6月 禮曹에 提出한 日本國王使船主道幸의 陳情書에 의하면 齊浦에 있는 滯貨는 銅이 21,200斤, 丹木이 11,000斤 鐵이 5,900斤에 達하였다고 한다<sup>7)</sup>. 世祖元년에 있어서의 使送倭人은 6,116名이었고 成宗初期의 倭使一行이 進獻한 銅과 蘇木이 3,4百駄에 達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sup>8)</sup> 世宗代 以來 日本人의 渡來는 增加되었

註 1) 李鉉孫氏는 留浦나 上送이나의 問題에 대하여 ‘浦所의 값이나 서울의 값이나 同一하게 支給되었음을 보겠는데 價值가 폭갈음에도 不拘하고 왜 上京貿易하려 하였는가 하는 理由가 明確치는 않으나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滯留하여 接待의 厚慰를 받을 수 있고 또 首都를 求京하며 流所에서 보다 觀光의 意義가 있고 또 或은 我國의 動靜을 살피기 위한 것도 때로는 있었을 것이나 上送시킨 것은 懷柔策의 一端도 內包된 것이 아닌가’하는 意見を 갖고 있다.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 p.149.

2) 世宗實錄, 卷127, 32年閏正月 庚申條.

3) 文宗實錄, 卷1, 即位年3月 戊辰條.

4) 世宗實錄, 卷 119에는 ‘公貿易一匹銅鐵至十斤 私貿易則或五六斤’(30年3月 丁酉條)라 하여 私貿易이 公貿易보다 40% 乃至 50% 더 비싸게 販賣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5) 世宗實錄, 卷127, 32年 閏正月 庚申條.

6) 上揭書, 卷120, 30年6月 乙亥條.

上揭書, 卷123, 31年2月 丙子條.

7) 世祖實錄, 卷2, 元年9月 戊寅條.

8) 上揭書, 卷8, 3年6月 壬寅條.

上揭書, 卷2, 元年12月 己酉條.

成宗實錄, 卷19, 3年6月 丁亥條.

고 蘇木의 輸入量도 繼續하여 增加한 것 같다. 成宗3年6月에는 다시 規定을 定하여 倭使의 所獻物을 船軍에 의하여 星州 花園縣(지금의 大邱와 星州의 中間에 있어서 水運의 要地이다)에 運送시키고 國用物은 農閑期에 上納하며 剩餘物은 民間에게 拂下하기로 決定한 것은 蘇木과 銅의 輸入增加와 輸京에 따른 民弊를 減少시키기 위한 方策이었다.

蘇木價의 推移

年	成宗5年7月 (1423年)	世宗8年12月 (1426年)	世宗10年1月 (1428年)	世宗30年3月 (1448年)	世宗3年6月 (1457年)	成宗20年7月 (1489年)
正布 1匹에 대하여	4.55斤					3.67斤
綿紬 1匹에 대하여	16斤	10斤	10斤	11斤		
蘇木 10斤에 대하여	正布 77尺	綿紬 21.88尺	綿紬 35尺	綿紬 35尺	綿紬 31.82尺	正布 95.42尺

凡例: 1. 이 表는 李朝實錄에 의한 公貿易價임

2. 便宜上 世宗30年 以前の 部分도 1匹35尺으로 하여 計算하였음

日本으로 부터의 輸入品에 대한 代價로 支拂되는 回賜品은 主로 綿油・布木等 色種의 織物이었다. 15世紀까지는 正布가 많이 支拂되었으나 漸次 綿布도 많이 支拂하게 되었다. 回賜는 匹單位로 行하였겠지만 1匹의 길이 35尺으로 固定된 것은 世宗30年7月 以後이고 그 以前까지는 35尺 1匹일 때도 있고 40尺 1匹일 때도 있어 固定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蘇木의 價格은 大體로 上昇하고 있다. 蘇木의 輸入量이 增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蘇木의 價格이 上昇하였다는 事實은 一面에 있어서 奢侈의 流行 乃至는 德 몬스트레이손 効果에 의하여 需要가 增進되었다는 事實을 反映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輸入된 蘇木은 闕內所用을 優先으로 確保하고 剩餘品은 一般商人에게 拂下하거나 혹은 많은 量이 貴族이나 侍女等에 대한 下賜의 形態로 配分되었으나 李朝後期에 와서는 自然災害와 飢民救濟等에 의한 緊急財政支出의 手段으로 利用되었던 것이다.

蘇木이 財政支出의 手段으로 그리 利用되지 않고 別로 反對給付가 없는 闕內所用과 貴族侍女等에 대한 下賜로 大量支出되었던 李朝前期에 있어서는 蘇木의 輸入이 增大함에 따라 一層 財政難에 直面하게 되었다. 成宗17年(1486年)11月 戶曹判書 李德良의 啓에 의하면 當時의 國儲는 世宗朝의 2分の 1인 50萬石에 지나지 않으며 倭人에 대한 回奉은 50萬匹 以上이었다고 한다<sup>1)</sup>. 그리고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成宗19年6月 戶曹判書 鄭蘭宗의 啓에 의하면 여름 3個月間의 倭人所獻에 대한 答賜布帛은 無慮 10餘萬匹인데 司贍寺의 遺儲는 단지 80餘萬匹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實質上 商人으로 認定되더라도 朝貢하는 者에게는 優待하고 國庫가 許容하는 限 回賜의 形態로 代價로 支給한다는 것은 建國以來의 傳統的 對日方針으로 되고 있었으나 北方의 國境警備로 말미암아 軍費支出이 增加되어 財政이 一層 困難하였던 15世紀의 末葉에 이르러서는 傳統을 無視할지라도 對日貿易을 一層 統制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V. 16世紀에 있어서의 蘇木貿易

成宗朝까지 盛行하였던 蘇木의 去來는 15世紀末에 이르러 一變하게 되었다. 燕山君 5年(1499年)6月에는 內寵이 많고 每日같이 賞賜와 器服을 調進시키는데 餘念이 없었던 燕山君

註 1) 成宗實錄, 卷19, 3年6月 辛亥條.

2) 上 揭 書, 卷289, 25年4月 乙丑條.

이 蘇木 1千斤을 入內하러 하였을 때에<sup>1)</sup> 戶曹은

‘蘇木本非我土之產 先王朝 則倭人多貢來獻 故用之有餘 近年絕不貢來 京外所在之數甚少 而進獻所用 及野人衣服 王子君古禮 用處甚多 今若濫用 則恐將難繼’<sup>2)</sup>

라 啓하여 先王朝 때에는 倭인이 多量の 蘇木을 進獻하였으므로 餘剩이 있었으나 近年에는 中斷되어 갖고 오지 않아 用處는 극히 많은데 京外所在量은 극히 적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있다. 財政困難이甚하고 蘇木·銅·鐵鐵等の 進上의 가장 問題化한 것은 成宗末年 以後의 일이며 成宗25年(1494年)4月에는 一切의 私獻을 禁止하게 되었으나<sup>3)</sup>,

使臣渡來에 관한 記錄(燕山君5年 3~4月)

3月 庚申	對馬州代官平朝臣宗兵部少輔盛親 遣人來獻土宜
辛酉	對馬州豐唐二郡太守平朝臣宗能登守盛俊 遣人來獻土宜
壬戌	日本國肥前州田平寓鎮源朝臣彈正少弼弘 遣人來獻土宜
丙寅	禮曹啓 日本巨魯源正尙所 遣倭人以銅鐵不許貿易 恕不入朝 自前年七月泊海至今逗遛曰 許貿易銅鐵然後入朝 不然非但不入朝 亦不還本國…
己巳	尹弼商議 今書契辭緣 雖有不遜之語 不足較也 其請公貿易 若不從之是絕物也 遠人之來 亦不可薄待…
庚午	接見 日本國巨首源政尙使 敬宗西堂壽鵬座元等
4月 庚寅	日本國大內防長豐筑四州太守多多良朝臣義興 遣人來獻土宜
丙午	日本國一岐州浦海飯田出羽守源集 遣人來獻土宜
戊申	日本國豐州守大友源朝臣親繁 遣人來獻土宜
己酉	日本國肥前州松浦鴨打源永 遣人來獻土宜
庚戌	日本國肥前州平戶寓鎮肥州太守源豐久 遣人來獻土宜

위의 表와 같이 燕山君代에 이르러서도 頻繁히 使臣의 土宜의 獻上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蘇木의 進獻이 없었다는 事實을 重要視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時期는 琉球貿易의 衰退期와 一致하고 있다는 事實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明으로부터 貢期制限을 받은 1475年 以後 琉球의 南方貿易이 衰退한 事實에 대하여서는 前述한 바이지만 특히 蘇木의 來獻을 渴望하였던 燕山君代에 이르러 5年半동안 蘇木의 來獻이 中絶되었던 事實은 琉球貿易의 衰退와도 關係가 있는 것이 아닐까. 秋山謙藏氏は ‘琉球가 朝鮮과의 通交中絶은 必然的으로 南方諸國과의 通交를 疎遠하게 하였다’<sup>4)</sup>고 말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琉球貿易이 衰退한 것은 ‘朝鮮과의 通交中絶’보다 先行된 것이다<sup>5)</sup>. 琉球國王使의 最後의 來朝라고 하는 燕山君 5年(1499年)은 日本人에 의한 蘇木의 輸入이 中絶되어 問題化한 時期이며 琉球-日本의 南蠻產物의 運送이 主로 倭寇와 直接的인 關係를 가지거나 혹은 影響力을 끼칠 수 있는 日本人에 의하여 占有되고 있었으므로 倭寇의 妨害가 세삼스러히 問題化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琉球貿易이 衰退하였기 때문에 日本의 對朝鮮貿易의 魅力이 減少되고 日本人이 琉球로부터 購買하는 蘇木의 量이 激減되었기 때문에 朝

註 1) 黑田省三氏, 前掲書, p. 148.

2) 燕山君日記, 卷33, 5年6月 丙辰條.

3) 成宗實錄 卷289, 25年4月 乙丑條.

4) 秋山謙藏氏, 李氏朝鮮과 琉球와의 通交史學雜誌 41編 p. 824.

5) 琉球大學의 富村眞演氏は 琉球貿易의 發展을 歷史的으로 分析하여 1475년부터 1511년까지를 琉球貿易의 第1期衰退時代로 規定하고 있다. ‘17世紀初期의 琉球에 있어서의 貿易勢力의 消長에 관한 考察’ 琉球大學, 文理學部紀要人文·社會 第4號, 參照.

鮮에의 再輸出이 激減 乃至는 中絶된 것이라 생각된다. 琉球商人은 말라카와 삼등지에 往來 할지라도 단지 默默地 交易에만 從事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곧 歸路에 올라 南方의 貿易路를 秘密히 하고 있었다는 點에 대하여서는 이미 秋山謙藏氏가 指摘한 바와 같지만<sup>1)</sup>, 海禁令의 解除와 西勢東漸을 契機로 하여 東西의 新貿易秩序가 再編成되었던 16世紀의 初頭에 이르기까지는 如何한 民族도 琉球에 代身하여 南蠻產物을 우리나라로 中繼하지는 못하였다.

16世紀에 이르러서는 蘇木에 대한 上流階級の 好奇心은 若干 減少된 것 같다. 日本人에 대한 回賜로 말미암은 財政難의 代名詞인 ‘無用之物’에 蘇木이 包含된 記錄도 보인다<sup>2)</sup>. 士大夫가 衣裏에 紅染하는 風習은 如前히 流行하고 있었으나 奢侈觀念의 焦點은 역시 中國產 白糸 및 紗羅綾段에 向하게 되고 또 紅花에 대한 認識도 어느 程度 改善되어서 蘇木에 대한 需要는 以前보다 減少한 것 같다. 그러나 闕內所用 혹은 朝服・公服等の 染色用으로 一定量의 蘇木은 每年 必要로 하였고 進上物으로써는 如前히 主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

燕山君8年(1502年) 正月 領議政韓致亨等の 書에 의하면 1年經費 以外에 屬하는 濟用監別例用度의 蘇木만도 3,250斤이었으나<sup>3)</sup> 翌年2월에 慶尙道가 進上한 倭人所質의 蘇木은 1千斤에 지나지 않았다<sup>4)</sup>. 中宗5年(1510年)의 三浦倭亂에 의하여 胡椒・丹木等の 輸入路가 完全히 杜絶되자 最後手段으로서 宗廟의 紅綃는 明으로부터 購入하고 儀仗袱・雜裏袱는 鴉青染色으로 代用한다는 革新的인 措置를 三公이 議決하게 되었다<sup>5)</sup>. 宗廟의 紅綃를 明으로부터 購買하는 것은 別問題로 하더라도 儀仗袱・雜裏袱를 ‘鴉青之染’으로 한다는 것은 傳統의 破壞를 意味하는 것이며 一大革新이라고 말할 수 있다.

壬申約條가 締結된 中宗7年(1512年)以後 蘇木貿易은 再開되었으나 統制는 一層 強化되고 蘇木의 輸入量은 15世紀의 그것에 比하여 激減되고 있다. 이 時期에는 密貿易도 一層 盛行되었던 것 같지만 中宗 28年 2月 問題로 되었던 東萊・能山으로부터 上送한 蘇木은 2百斤에 지나지 아니하였다<sup>6)</sup>. 그러나 中宗朝의 中葉부터는 漸次 蘇木의 輸入은 增加된 것 같다. 中宗39年(1544年) 正月 日本國使臣受筆東堂은 蘇木 8千斤의 加質을 請願하였고<sup>7)</sup>. 明宗元年(1546年)10月 日本國使臣安心東堂의 가지고 온 蘇木은 3千斤이었으나<sup>8)</sup> 역시 그 費用이 問題로 되고 있었다.

16世紀에 있어서도 北邊의 警備 때문에 一層 많은 費用을 支出하지 아니하면 안되었고 또 日本으로부터 多量의 銀을 輸入하였으므로 財政難이 더욱 激甚하였다. 明宗6年10月 右議政尹澁는 議하여 木花가 絶貴한 이야기는 他邦에 알려지기 때문에 使用하지 말고 我國이 그들의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拒絕하여야 한다고 陳述하고 있다<sup>9)</sup>. 布木이 現物貨幣로 流通하고 있는 國家에 있어서 木花가 絶貴하다는 것은 그 原因이 人爲의인 것 또는 豊凶作과 같은 自然的인 것이건 간에 現實로서는 回賜에 堪當할 수 없을 程度로 財政이 窮迫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雄辯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情下에서 明宗12年12月에는 受職・受圖書人에 대하여 丹木 30斤, 胡椒 50斤,

註 1) 秋山謙藏氏, ‘室町時代に 있어서의 琉球의 印度차이나諸國과의 通交’ 歷史地理, 第56卷, 第6號 參照.

2) 明宗實錄, 卷12, 6年10月 戊寅條.

3) 燕山君日記, 卷42, 8年 正月 辛丑條.

4) 上揭書, 卷48, 9年2月 丙辰條.

5) 中宗實錄, 卷12, 5年10月 乙酉條.

6) 上揭書, 卷73, 28年2月 辛卯條.

7) 中宗實錄, 卷101, 39年正月 己未條.

8) 明宗實錄, 卷4, 元年10月 丙戌條.

9) 上揭書, 卷12, 6年 10月 戊寅條.

進上物表 (580~11586年)

種類	丹			木			胡椒			※括弧内는 其他		
	年	天正8年 宣祖13年 1580年	天正9年 宣祖14年 1581年	天正10年 宣祖15年 1582年	天正11年 宣祖16年 1583年	天正12年 宣祖17年 1584年	天正13年 宣祖18年 1585年	天正14年 宣祖19年 1586年	天正15年 宣祖20年 1587年	天正16年 宣祖21年 1588年	天正17年 宣祖22年 1589年	天正18年 宣祖23年 1590年
量(斤)		6人	人	人	1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0												
1												
2												
3												
4												
5		6			1							
6		2										
7		1										
8												
9		35	21		1	2	4	2				
10												
11												
12												
13												
14												
15		9	7	1	1	3	7	4				
16		1	1									
17												
18												
19												
20		13	36		24	17	53	55				
21												
22												
23												
24												
25		1	1	1	1							
26												
27												
28												
29												
30		4	21	42	54	57	16	13				
計		955斤 12.2斤	1,690斤 19.4斤	2,000斤 25.3斤	2,130斤 25.7斤	2,315斤 29.3斤	1,710斤 21.1斤	1,570斤 21.3斤				
均												
合												
平												

凡例: 1. 이 표는 '朝鮮送使國大之書契覺'에 의하여 作成한 것임.

2. 數量 0斤의 人數는 胡椒等の 進上이 있는 데도 確實히 丹木의 進上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硯箱 2,3個 以上の 進上을 嚴禁하게 되었다. 1駄는 約 百斤이었으므로 丹木・胡椒 其他를 합하여 使臣 1人에 대한 最高限度가 約 1駄分으로 되는 것이다.

對馬太守 앞으로 보낸 禮曹의 修書에

‘日本受職受圖書往來之人 雖以土宜進上 曩時則胡椒丹木皆不出十斤之外 歲久濫觴虛僞日滋到今尤甚 或至四五十斤 甚者或至百斤’<sup>1)</sup>

이라 陳述하고 있는 것을 보면 明宗朝에 이르러 蘇木의 進上은 急激히 增加된 것 같으나 以上과 같은 制限을 받은 後로 減少한 것 같고,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宣祖13년부터 同 19년까지는 平均 1,2千斤의 蘇木이 每年 進上되었음에 지나지 않고 最高가 宣祖17年の 2,315斤이다.

위의 表에 의하면 31尺 以上の 蘇木을 進上한 者는 果然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貿易統制에 얼마나 深重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有力한 證據가 될 수 있다는 點은 이미 田中健夫氏가 指摘한 바와 같지만<sup>2)</sup> 若干 角度를 돌려 檢討한다면 10斤부터 20斤까지가 가장 많고 宣祖13년에는 20斤 以下の 進上者가 全體의 93%나 차지하고 있다. 硯箱의 경우는 規定數를 超過하고 있는데도 丹木은 規定量의 半에도 未及하는 事例가 많다는 事實은 丹木이 進上物로 適合하면서 購買價格의 昂騰・品切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獲得하는 것이 容易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年度에 따라 丹木의 進上量에 많은 差異가 있음을 보더라도 朝日貿易이 얼마나 南海貿易과 密接한 關係에 있었던가를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다.

※

※

註 1) 明宗實錄, 卷23, 12年12月 己酉條.

2) 田中健夫氏,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p. 203.